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미가서-

예비 된 때

(미가 6장 9 - 16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때리실 때가 있고 싸매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읍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나옵니다(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9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회개시킨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잣대를 속여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어떤 방법으로 소득 하였는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12절).

거짓은 부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로 인해 이익을 보았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1.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9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부름을 받았을 때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를 경외하며 달려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 정의로써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합니다(8절).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9절).

미가는 또한 예비 된 때를 맞이 말고 빨리 회개하라고 합니다.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맞이 전에 매의 소리를 영적으로 듣고 빨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이스라엘의 죄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10-12절).

이스라엘의 죄는 한 마디로 불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거짓말투성이의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뿐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느 모퉁이에도 참과 진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교육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배가 있느냐”(10절).

예배는 곡식을 재는 용기입니다. 축소시킨 예배는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속이

3.이스라엘이 받을 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 다니는 안개니라”(잠 21:6).

거짓말을 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은 결국 그 재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개는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재물은 바람에 불려 다니는 안개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잠 23:5).

돈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굶어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14절).

벌어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 허무하기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같으나 실상은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결국 하나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여서 번 재물은 아무리 감추어 놓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빼앗아 가십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수고 일뿐입니다(15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 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16절).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바알 신을 숭배한 사람입니다(열왕16:25).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예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랐으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비 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3 열린 바자 3주 앞으로 다가와

9월3일(수) ~ 5일(금)까지 3일간

이웃사랑과 교회 사랑을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 2003년 열린바자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교회는 교회 설립이후 거의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여 이웃주민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바자를 개최하여 왔다.

올 2003년 열린 바자의 수익금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탈북자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바자 준비위원회에서는 매주일 모임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을 점검

하고 있다. 또한 이미 바자회를 위한 기증품 접수를 시작하여 기증품을 접수하는 성도들의 발길이 주중에도 속속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를 통한 주님의 사랑이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게 널리 퍼져나가도록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다.

기증품은 교회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다.

중·고등부 찬양의 밤

8월22일 (금) 오후 7시~10시

고등부는 매학기 초, 친교 위주의 Lock-in 행사를 가졌으나 금년 여름에는 중·고등부가 연합하여 '찬양의 밤' 행사를 갖기로 하였다.

주위의 친구들을 초청,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번 행사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이웃사랑의 잔치가 우리 손으로

김광신 장로(바자 준비위원장)

제일 좋은 곳 강남의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특은을 받은 교회임에 틀림없고 우리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위치에까지 높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몸으로 삶으로 보이라는 명령이시다.

금년에도 이웃사랑, 교회사랑의 높은 깃발을 들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열린 바자를 행하려고 한다. 특히나 이번 바자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되어 더 많은 이웃사랑의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일년에 겨우 한 번 밖에 없는 '열린 바자' 이어서 참여도 면에서도 성공적이 못되고 목표액 달성도 미달하는 사태가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

므로 우리의 염려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는다. 내가 참여하고 헌신해야 열린 바자가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것이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감히 부탁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열린 바자의 수익금은 독거노인 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탈북자 돕기,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한다.교구별 목표액은 배정하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부터 기도와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김세재 장로(새가족부 부장)

2년 전 일입니다. 새 예배당으로 옮긴 후 많은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늘 조바심과 기쁨으로 새가족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신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 등록을 하고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서울교회 오길 참 잘 했구나 싶었는데 막상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보니 관련 부서나 다락방에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봉사할 기회도 없어 돌 위에 떠 있는 듯하다는 호소를 했다는 얘길 듣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1회 새가족부 Homecoming Day를 준비하여 새가족들을 초청했는데 8층 만나 홀이 가득차는 성황 속에서 즐거운 만남과 교제, 그리고 각 부서의 스카우트전(?)이 뜨거웠던 기억

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3회 홈커밍데이에 작년 7월1일 이후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초대하여 당회원들을 소개하고 교회일꾼들과 함께 선교회, 전도회, 그리고 교구식구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교회 봉사부서를 소개하는 만남의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새가족부 수료식 때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뵙기 원합니다. 오는 8월 30일(토) 오후 3시 30분까지 8층 만나홀로 오셔서 후배 새가족들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매월 셋째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성경을 통독하신 성도들을 시상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8월 셋째 주일이 되는 오늘 성경을 통독하신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회는 성경을 통독하신 성도들에게 교회 로고가 새겨진 머그 컵 세트를 기념으로 드리고 있다.

8월 성경 통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3독 - 김선미 권사(11교구)
- 2독 - 이운영 권사(5교구) 유후자 권사(5교구) 권영자 권사(8교구) 이봉선 집사(8교구)
- 1독 - 김숙자 권사(12교구) 이상 6명

단기선교단 선교활동 보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8월14일 오전에 캄보디아에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건강하게 귀국한 제3기 단기선교단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선교활동보고를 한다.

전교인 사진 촬영

8월31일(주), 9월7일(주) 2주간

1부,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지난해 우리교회는 등록된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적부와 각종 자료에 활용할 사진을 촬영한바 있다. 이제 1년이 지나 그동안 새로 등록하신 성도들과 지난해 개인사정 등으로 미처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인 사진 촬영을 할 계획이다.

교인 사진 촬영 일정은 8월31일(주)과 9월7일(주) 2주 동안이며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마친 후 802호실에서 한다.

사진 촬영은 멀티미디어 봉사단(단장 조철기 집사)에서 수고하게 되며 고등부 이상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해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한 성도들과 그동안 새로 등록하신 성도들은 이번 교인 사진 촬영에 꼭 참가해 주시기 바란다.

금주의 성구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9-10)

All our days pass away under your wrath; we finish our years with a moan. The length of our days is seventy years--or eighty, if we have the strength; yet their span is but trouble and sorrow, for they quickly pass, and we fly away.

(Niv Psalm 90:9-10)

캄보디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소정(청년부)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스물 세 명의 단기 선교사들은 모든 일정과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지난주 현지에서 전해드렸던 프놈펜 대학생 교회와 콩봉툼 교회의 소식에 이어, 세번째 선교지였던 폼스라에는 비포장도로를 한 시간 여 달려야 닿을 수 있는 벽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생활환경이 보다는 생존하는 일에 분투하는 사람들의 마을이었고, 성한 옷을 입은 아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험하고 굶주린 곳이어서 우리를 이 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폼스라에는 캄보디아에서도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막 개척단계에 있는 교회 역시 크메리어를 모르는 이 곳 사람들을 위한 문자학교를 임시로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워십댄스 공연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어떤 이는 우리를 보기 위해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용과 의료, 방역 봉사를 진행하는 이틀 동안 청년들은 폼스라에의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를 열고 사영리 전도와 찬양배우기, 기도 손 만들기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살인적인 폭염과 마실 물을 살 수도 없는 폼스라에서 야자수로 목을 축이며 해질녘까지 사역이 진행되었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몸소 체험하며, 단기 선교사들은 몽클한 기쁨과 감사로 고단함도 잊고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였고, 그물을 던질 때마다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즐거워하는 우리를 보고 그들도 즐거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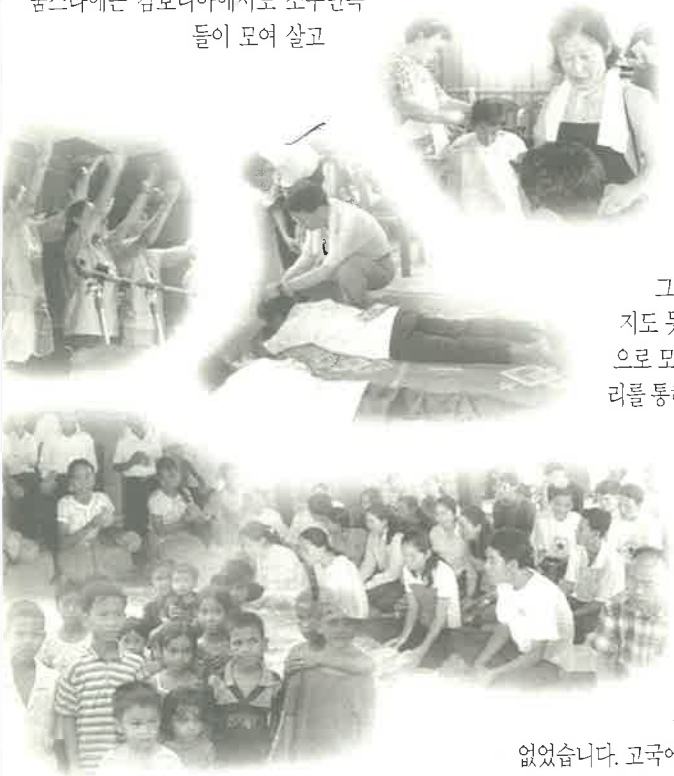
폼스라에서 다시 프놈펜까지 반나절을 달려 돌아온 단기선교팀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단련받은 프놈펜 대학생 교회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프놈펜 시내와 대학교를 중심으로 사영리 전도와 봉사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몹시 고단하고 체력이 소진되어갔으나 복음이 절실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잠시도 쉬 수가 없었습니다. 고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을 여러 성도님들과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을 기억하며 지쳐 쓰러졌던 단기선교사들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구에 캄보디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엘리트 그룹인 왕립 프놈펜 대학교의 자원봉사 학생들의 헌신이 단기선교팀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크고작은 우여곡절이 뒤따르는 중에도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고 담대하게 앞장서신 김운호 목사님과 김광신 단장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세세한 일정을 발로 뛰며 챙기신 총무 최형열 집사님,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은 단기 선교사들의 순종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선교지인 스톤 멘체이 교회에서는 실어증과 자폐 증세를 보이던 한 청년이 들것에 실려 왔는데, 놀랍게도 안수기도와 침술치료를 받고 일어나 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그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로 증거 하게 하심을 경험한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출국전 공항에서 우리는 거대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공평정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더욱 축복하시기 위해 그 많은 시련을 허락하셨음을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와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난 3월부터 준비한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불과 열흘동안 진행되었지만, 인골로 베워졌던 킬링필드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내는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캄보디아 땅을 중흥무진하며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했던 단기선교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열흘간의 사역은 끝났지만, 우리는 또다시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지금의 캄보디아는 통일 후 복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변의 복음에 갈급한 많은 심령을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어렵고 귀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2003년 농촌전도대 보고서

-승원교회-

강양중 집사(13교구)

2003년 8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서울교회 농촌전도대는 성도들의 배움을 뒤로 하고 목적지인 승원교회로 향했다. 현지에 도착하여 이미 서울에서 미리 기도하고 전도 쪽을 정하여 기도하여왔기 때문에 교회와 동네, 전도대상자들의 이름이 낯설지 않아 바로 전도에 들어 갈수 있었다.

첫째 날 저녁에 많은 동네 분들이 찾아오신 가운데 천국잔치를 열수 있었으나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둘째 날, 첫째 날 저녁 집회가 재미있고 은혜로웠다는 소문이 퍼지며 이제껏 교회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찾아오시고 마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

심을 맞으며 마치 술 취한 자같이 된 시간이었다. 구약의 주님께 엄숙한 신앙고백을 하게 됨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셋째 날은 수련회에서 돌아온 승원교회 젊은 형제자매들이 천국잔치에 함께 하였고 승원교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넷째 날, 새벽예배를 끝으로 3박4일의 농촌전도대 활동이 끝났다. 항상 끝을 맺으며 돌이켜 보면 항상 준비의 소홀함과 기도의 부족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년에는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 불을 붙이리라 다짐한다.

곡산옥 권사(13교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온 나를 지금껏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농촌전도대로 파송 받은 곳은 충남공주의 승원교회였습니다.

도착해서부터 계속하여 맑은 공기와 하늘을 허락해서서 모든 대원들이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여 37명의 결실을 맺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결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식당봉사로 이미용봉사로 전도봉사로 봉사하는 모든 대원들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침술 봉사를 허락하셔서 3일 동안 침을 놓으며 봉사를 하시기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침술 봉사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승원교회 앞에 많은 발전과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기고

생명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김영안 목사 (법동목사)

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자살중이다. 우리 사회는 생명의 존엄에 대한 깊은 각성을 해야 한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생명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간은 단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욱 의미 있게 열매를 맺도록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청지기 사명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나의 몸, 나의 자식이나 나의 소유라는 생각은 현대 세속주의가 가져다준 인본주의 사상이다.

성경은 생명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1: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2:7)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다. 스스로 존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엄한 것이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

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창 4:1) 부부가 성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갖는 것은 창조주가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다.

성경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생명에의 외경이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첫째, 우리는 생명에 고난이 올 때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구약의 율기는 이러한 생명존엄 사상을 보여준다. 동방의 의인 욥은 하루 아침에 광풍으로 인해 그 자녀들을 잃는다. 이에 대하여 욥은 슬퍼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둘째, 생명이 위협할 때 우리는 돌보아야 한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들이 파선되어 모든 행선자들이 열나홀을 먹지 못해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바울은 바다의 폭풍 속에서 파선되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행 27:22) 바울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위태로움에 직면한 생명을 돌볼 것을 권면한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

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행 27:34)

셋째,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나 죽게 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부비를 주며 그 생명을 위협에서 구원해 주었다(눅 10:30~37).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 것이다. 성도들은 생명 존엄의 삶을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캠페인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절대빈곤과 소외계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 스스로도 사회적으로 절대 극빈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

성도들은 이웃에 희망과 생명을 주어야 한다. 고통과 질병과 고민과 생활고에 절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우쳐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홍지혜(중등부)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던 날 나는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거의 밤을 샜습니다. 나도 내 체력과 의지에 놀라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실감치 못하고 있다가 시험이 끝나고 장학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내가 변한 것은 십일조를 낸다는 것. 비록 내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지 못하는 것만 내 정성만이라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는 결정이 났을 때에는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장학금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은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잘 해야겠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유용히 쓰이신다고 하신다는데 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지혜야" 라고 나를 부르신다면 어떤 일이건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나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왕 받았으니 교회에서 기대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주신 교회,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리고 교회 여러분과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매일 노력하는 성실한 신앙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하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관별 식당 봉사자

817(주) - 비외여전교회 8.24(주) - 마리아여전교회
8.31(주) - 에스더여전교회

동정

- 이종윤 목사는 미국 이민 백주년 기념(청교도 신앙세미나)연합집회 인도차 미국 볼티모어로 21일 출국하여 28일 귀국한다.
- 이사: 김희진 권사 양천구 목1동 하이페리온 102-2202 (전화: 2646-3698)
차운숙 성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상록로즈빌 A-301
- 교역자 하기휴가 (18일 ~ 23일)
한상은 목사: 대행 - 이성득 목사(011-9034-8408)
윤영국 목사: 대행 - 이규정 목사(011-9061-7161)
이용식 목사: 대행 - 오정식 목사(017-722-4959)
- 금주의 식사: 이근홍 집사 · 황현숙 집사 가정
- 범사에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사랑 이웃사랑 열린 바자(9월 3일 ~ 5일)를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도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